

성아모 0회 정답과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⑤
6	④	7	③	8	②	9	②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②
21	④	22	②	23	③	24	⑤	25	⑤
26	⑤	27	④	28	⑤	29	①	30	④
31	①	32	②	33	⑤	34	①	35	④
36	③	37	③	38	①	39	⑤	40	④
41	②	42	④	43	③	44	③	45	②

해설

[1~3] 화법과 언어

1. [출제의도] (화법)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학생은 발표에서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주체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 '큰 목소리'로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특정 용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2. [출제의도] (화법과 언어)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높임 표현 이해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 예문은 '돌아가다'라는 특수 어휘와 함께 '-시-'가 결합된 것이다. 즉, 이는 특수 어휘만을 사용하여 주체 높임법을 실현했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3. [출제의도] (언어) 언어적 특성 파악

<보기>에서 선생님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하여금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규범과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의도적 언어 오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언어는 사회·문화적 맥락(서비스직)에 따라 특정 목적(가게에 친절한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 규범과 어긋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6] 화법

4. [출제의도] 협상에서 중재자의 역할 파악

중앙 동아리 회장 두 대표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여 두 대표를 진정시킨 뒤에, '그렇다면 각자 생각한 해결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중앙 동아리 회장'은 양측 대표에게 해결안 제시를 요청하며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분쟁 상황에서 대화의 이해

'뮤지컬 대표'와 '비보잉 대표' 모두, '별도의 협의 없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에 있던 상황, 각각 '우리를 쫓아내려 했던 상황' 및 '무작정 소름 설치'를 이유로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비보잉 대표'는 '여기서 "별도의 협의 없이"라는 말은 학교의 허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며 상대 대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비보잉 대표'는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판단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대화를 드러내지 않는다.

③ '비보잉 대표'는 상대 발언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으며, 무례함 자체를 지적하기보다 '연습 방해'와 같은 구체적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④ '뮤지컬 대표'는 '학교의 허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협상의 전략 이해

'강당의 사용 구역'에 관한 논의에서 '뮤지컬 대표'는 '무대 동선'을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7~10] 언어

7. [출제의도] 담화 맥락에서 합성어 파악

<보기>에서는 합성어를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로,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대등/종속/융합 합성어'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 관계는 동일한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료>에서 '㉠밤낮'은 맥락에 따르면, '밤과 낮'을 의미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로, '㉡늦더위'는 '늦다'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것이고, '늦은 시기의 더위'라는 의미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종속 합성어이고, '㉢갑바섯'은 '갑다'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나타났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융합 합성어로, '㉣밤낮'은 맥락에 따르면 '늘'을 의미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융합 합성어로, '㉤오가는'은 '오다'의 어간에 동사가 결합한 것이고, '오고 가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대등 합성어이다.

8. [출제의도] 중세 국어 의문형 표현 파악

<보기>에 입각하여 [자료]에서 ㉠는 '의문 종결어미'가 활용된 '관정 의문문'이고, ㉡는 '의문 종결어미'가 활용된 '설명 의문문'이고, ㉢는 '일'이라는 체언이 의문 요소가 붙었으므로 '의문 보조사'가 활용된 '설명 의문문'이고, ㉣는 '의문 종결어미'가 활용된 '설명 의문문'이고, ㉤는 '의문 종결어미'가 활용된 '설명 의문문'이다. 고로, ㉡번에서 ㉢와 ㉣는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가 각각 의문 종결어미와 의문 보조사'이므로 둘은 동일하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9. [출제의도] 음운 변동 파악

'덧붙임'은 [덧붙임]->[뒹붙임]->[뒹뽀침]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확인되는 음운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평파열음화)', '경음화', '구개음화'이다.

'영업용'은 [영업농]->[영업농]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확인되는 음운 규칙은 'ㄴ첨가' 이후에 '비음화'이다.

'훤'은 [훤] -> [훤른]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확인되는 음운 규칙은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유음화'이다.

여기서 '영업용'에는 [영업농]에서 뒷소리인 'ㄴ'에 의해 앞의 'ㄹ'이 바뀐 역행 동화가, '훤'에는 [훤]에서 앞소리인 'ㄹ'에 의해 뒤의 'ㄴ'이 바뀐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덧붙임'에서 나타난 음운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평파열음화)', '경음화', '구개음화'인데, 이는 모두 '교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덧붙임'에는 총 세 번의 변동 횟수가, 나머지는 두 번의 변동 횟수가 나타났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덧붙임'에는 교체만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고, '영업용'과 '훤'에는 각각 첨가 및 삭제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덧붙임'과 '훤'에는 교체가 한 번씩 확인되는데, 각각 비음화 및 유음화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피동과 사동 이해

㉠의 목적어는 '(현장에서 도주하던) 도둑'이고, ㉡의 목적어는 '(빨간) 옷'이다. 이 둘은 ㉢와 ㉣에서 각각 주어, 목적어로 나타나므로, 둘 다 주어로 나타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11~23] 독서

<11~14> 소재: 초현실주의 사진

11.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

윗글에서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배경, 초현실주의자들의 인식, 그리고 사진에 대한 크라우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 기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다.

[오답풀이]

② '1차 세계대전'에 의해 '기존 질서 체계'에 회의감을 느꼈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찾기 위해서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세계의 질서'는 '인간의 무의식'에 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글의 의미 파악

㉠는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즉, 현실을 거부하는 초현실주의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역설이 발생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사진의 '존재와 부재의 공존'은 사진 자체의 역설을 의미하지, '초현실주의'와 '사진'의 역설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범주가 아니다.

② 초현실주의는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거부'는 부적절하다.

③ '초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로 '환원'된 상황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

④ '이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진을 활용한 것이므로, 믿음을 유지했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정답 및 해설

13. [출제의도]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 파악

㉠은 사진이 초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현실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이다. 뒷글에서는 사진이 '현실의 흔적'을 보여 주는 기호이면서 동시에 '이성이 개입하기 이전 현실'을 포착하여 무의식적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사진은 '인간의 내면'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외부'를 포착하는 것이다. 즉, 세계의 외부를 포착하여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려는 시도가기에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② 뒷글에서는 사진이 대상이 '있음'과 '있었음'이 '공존'하는 성격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 둘을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사진이 '이성 너머의 현실'을 '모방'한다는 내용은 사진을 '재현의 결과'로 본 것인데, 이는 크라우스 주장 즉, '사진은 재현의 결과가 아닌 지각의 차원'이다 라는 주장과 맞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⑤ 뒷글에서 사진이 '현실의 흔적'을 보여 준다고 하였을 뿐, '가공된 현실'을 전달한다고 하거나 이를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감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의적 준거와 비교

뒷글에서 초현실주의 사진은 '감상자로 하여금 현실을 낫설고 기이하게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여 현실을 낫설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보기>에서 저널리즘 사진은 '독자가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여 현실의 사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뒷글에서는 '재현'이 '현실을 모방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성'이 개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은 저널리즘 사진에 '주관적 판단(이성)이 개입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현'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재현에는 이성이 개입된다.'를 '이성이 개입되면 재현이다.'로 뒤바꾼 것이다. 또한, 저널리즘 사진은 '현실을 모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② 뒷글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거부'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초현실주의 사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 ③ 뒷글에서 비가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는 '인간의 내면, 무의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 비가시적이라 한 것이지,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고 비가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④ 뒷글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였지 '이성적 세계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18> 소재: 오타 검출 및 교정

15. [출제의도] 핵심 정보 추론

규칙 기반 방식에서 조건은 오타 검출 환경에 해당하고, 결과는 오타 교정 방식에 해당한다. 즉, 'A하면 B할 것.'에서 A가 조건, B가 결과인 것이다. 그렇기에 선지에서 '반칙이 있는 단어'를 '블'이 붙으면'은 조건에 해당하며 교정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규칙이 많을수록 다양한 오류를 처리할 수 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로 추론하면 규칙이 적을수록 처리 범위가 제한되므로 적절하다.

- ② '관리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확인되면 교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단어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④ '국밥'에서 '국밥'이 된 것은 'ㅅ'을 삽입하여 발생한 오류로 추정할 수 있고, 어휘사전에 없는 단어면 단순 철자 오류라는 진술에서 '국밥'이 단순 철자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에 대한 근거 찾기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오타의 결괏값이 어휘사전에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철자 오류'라고 했으므로, 단어 자체만으로는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어의 철자만으로는 문맥의존 철자 오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문맥의존 철자 오류든, 단순 철자 오류든 둘다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발생한 철자 오류이다. 문맥의존 철자 오류에 사용자의 의도가 개입했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 ③ 결괏값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문맥의존 오류 철자는 '해당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타'이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⑤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어휘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만으로는 오류 판단이 어렵다고 했으므로, 어휘사전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조건을 뒤집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은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확인되면, 해당 단어에 대응하는 후보를 생성하여 대응 문장을 만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오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등장하면 대응 문장을 먼저 생성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오타를 검출하기 위해 ㉠은 사진에 설정된 기준, 즉 '관리자의 규칙'을 활용하고, ㉡은 사진에 구성된 '어휘 쌍'을 활용한다. 즉, 모두 사진에 설정된 기준을 활용하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② ㉠은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교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리자가 직접 교정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 ③ ㉡은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하면 대응 문장을 생성한다. 고로, 입력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⑤ 두 방식은 모두 '문맥의존 철자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의적 준거 이해

<보기>의 ㉡ 모델은 오타 검출 후 오타 교정을 하기 위해 여러 후보 단어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교정 어휘 쌍 방식은 대응 후보를 먼저 생성 후에 오타를 검출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보기>에서 ㉡는 통계적 방식이라고 나타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② ㉡의 '조건부 확률'은 단어 결합의 통계적 의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건된 형태의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규칙 기반 방식의 조건과 개념이 다르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는 단어 간 결합 확률을 이용해 문맥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오히려 문맥의존 철자 오류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을 반대로

이해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어휘 쌍 교정 방식은 '어휘 쌍을 미리 구성'하여 후보를 제한하는 방식이고, ㉡는 '말뭉치의 출현 빈도'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교정 방식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19~23> 소재: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월드론과 르푸트의 견해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월드론은 혐오 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 혐오'로 본다. 즉, 특정 개인이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자를 향해 가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문자화된 혐오 표현은 '경쟁적인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공공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경합성'을 가지면서도 '경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② 월드론은 혐오 표현이 소수자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잠재적 혐오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르푸트는 혐오 표현이 '시민의 지위로서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⑤ 르푸트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시민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될 것임을 예상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특정 내용 비교

㉡는 '예속된 권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즉, '비지배로서 자유'가 담보된 사회인데, 해당 사회는 개인이 표출하는 의견은 그 내용이 어떻든 공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이다. 그렇기에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공적 발언권이 상실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르푸트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위해서 초점을 둔 것은 '비지배로서 자유'였다. 그러므로 해당 진술은 르푸트의 주장과 거리가 멀기에 부적절하다.
- ③ '비지배'는 '외부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나 권력을 가진 시민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상황 자체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하지 않는다. 또한 르푸트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④ 지배 사회는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했을 때 나타나게 될 사회이지, 국가가 혐오 표현을 방관했을 때 나타날 사회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⑤ 르푸트는 혐오 표현이 소외자의 존엄성에 해악을 가한다는 내용이 동의한다. 지배 사회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회에서는 소외자의 존엄성이 상실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21. [출제의도] 특정 견해를 중심으로 다른 견해 비판

월드론은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수자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즉,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규제를 거부하는 르푸트는, 혐오 표현이 지속될 때 소외자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정답 및 해설

【오답풀이】

- ① 윌드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정당화한다고 했으므로, 도덕적 관념과의 충돌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지문과 맞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 ② 르푸트는 혐오 표현이 개인의 의견을 예측하는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르푸트는 개인의 의견이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사람이기에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혐오 표현을 개인의 악의적 동기란 보는 것은 혐오하다'는 것은 르푸트의 입장이므로, 이를 윌드론의 비판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 ⑤ 윌드론은 '사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규제를 통해 표현 주체의 사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는 지문과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특정 견해를 의적 증거에 적용하기

르푸트는 '국가가 대항 표현을 사용하여 정의에 대한 확신을 재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혐오 표현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반박하는 표현을 통해 소외자의 존엄성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규칙 1'은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대항 표현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정의에 대한 확신을 재고할 수 있다고 본다는 진술은 르푸트의 입장과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혐오 표현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공공재 성격을...'에서 @은 '드러난다'가 아니라 '드러난다'로 써야한다. '드러난다'으로 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의미적으로도 틀리게 된다.

[24~27] 독서/작문

<24~27> 소재: 장소경제성과 지역성 / 전통 시장

24. (독서)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

(가)는 이푸 투안과 렐프의 견해를 통해 '공간→장소→장소경제성→무장소성'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자의 견해를 활용한 개념 설명 방식이다. (나)는 '지역성→경제적 승수 효과→경제 순환 구조'의 과정을 통해 지역성이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독서)[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때 경제적 승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즉, 소득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순환할 때 승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선지는 '외부로 유입될 시에'라고 하여 승수 효과의 조건을 잘못 이해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작문)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3문단에서 '경제적 승수 효과', '경제적 누출'과 같은 개념을 활용하여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 '지역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가 약화된다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독서/작문) [출제의도] 논증을 위한 자료 활용

<보기>에서 '인접한 B 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신설되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은 대형 유통시설이 외부 경쟁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경제적 승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선 특정 경제 주체의 지출이 선행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연결지어서 대형

유통시설은 경쟁 업체로부터 경제 주체의 유출이 쉽게 일어나 지역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보기>는 자영업자 이탈과 상권 붕괴를 보여 주지만, 이를 '장소경제성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로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 또한, (가)에서 장소경제성은 공간에 개인의 시간이 스며들었을 때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미루어 짐작하면 백화점에도 개인의 시간이 스며들면 장소가 될 수도 있기에, 장소경제성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 ② <보기>의 이용객 감소는 경쟁 시설 등장에 따른 소비 이동 현상으로, '장소감 형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보기>는 전통 상권 매출 감소를 보여 주지만, 이를 '백화점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경제를 독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나)의 지역성 개념과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⑤ <보기>를 통해 소규모 점포 폐업 증가는 확인되지만, '방문객이 외부인이라서 소득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나)에서 '지역성으로 인해 유입된 외부 수요가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이 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여 지역 경제의 총소득이 확대'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 시장도 '외부 수요'로부터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28~30] 작문

28. [출제의도] 고쳐 쓰기

수정 내용에는 독자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초고에서 '현대 사회는 사람들 간 소통이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라는 문장은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초고에서는 개인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만 있었고, 수정본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확인된다.
- ③ 초고에서 '풍부한' 자기 노출이 수정본에서 '적절한' 자기 노출로 되어 있다. 이는 4문단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 ④ 초고의 마지막 문장 서술어는 '꾸미다'인데, 수정본에서는 '가꾸다'로 되어 있다. 꾸미다는 외적 측면이 강하고, 가꾸다는 내적 측면이 강한 단어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자기 노출은 '본인의 생각과 느낌 등을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이므로 ㉔는 내가 알고 있으나 타인이 모르는 '숨겨진 영역'을 의미한다. ㉕는 <보기>에서 '공개된 영역이 넓을수록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친밀하다고 여기게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초고'에서 '자기 노출'이 친밀감과 직결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영역'을 의미한다.

30. [출제의도] 제목 쓰기

초고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를 전제로, 자기 노출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간극을 좁히는 기능을 드러낸 진술이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일반적 기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간극'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간극을 만든 자기 노출'이라고 하여 자기 노출의 기능을 반대로 이해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자기 노출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간극을 좁히는 효과와 거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자기 노출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31~45] 문항

[31~35] (교전시기)

(<출전> (가) 작자 미상, 『봉선화가』, (나) 유씨 부인, 『조침문』)

3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 전개 방식 찾기

(가)에서는 '꽃에게 말 부지대 그대는 한(恨)터 마소'라는 구절을 통해 '꽃'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에서는 '바늘이여' '너는' 등 표현을 통해 '바늘'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둘을 통해 발화 주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③ (가)에서 '꽃'에 인격을 부여하기는 하나, '꽃'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또한 (나)에서 '바늘'의 재질을 칭찬할 뿐, 이것을 닮겠다는 진술은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32. [출제의도] 특정 구절 이해

[B]에서 화자는 '꽃'을 심은 뒤에, '춘삼월'이 지는 후에 '향기' 없다고 비웃기 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향기'가 있으면 '취한 나비' 밧친 벌'이 따라와 '꽃'을 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화자는 '나비'와 '벌'이 '꽃'을 해치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그 둘이 '꽃'을 찾아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33. [출제의도] 특정 구절 의미 파악하기

㉔에서 화자는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라고 하여, 바늘과의 이별 이후에도 다음 생에서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는 대상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㉔에서 상실의 안타까움은 드러나지만, 이를 자신의 기구한 신세에 대한 자조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 ② ㉔에서 '바늘'을 상스러운 동물에 빗대는 게 아니라, 바늘을 통해 '난봉'과 '공작'을 수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바늘의 성질을 강조할 뿐, 자신을 닮으며 바늘이 자신에게 과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㉔은 바늘이 자신의 삶에서 자식이나 비복보다도 더 긴밀한 존재였음을 강조하는 부분이기에, 결핍에서 오는 상실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 ④ ㉔에서 화자는 '무죄한 너를 마치니'라고 하여 바늘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내용과 반대이므로 부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시어 간 비교

(가)에서 화자는 ㉔를 보고 '편지'에 피어오르는 꽃이라고 비판하며, ㉕는 겨도 '슬허'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㉕는 봉선화를 칭송하기 위해 화자에 의해 경시되는 대상이다. (나)에서 ㉕는 작품 전체 내용을 통해 글쓴이에게 각별한 애락을 보이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정답 및 해설

[오답풀이]

④ ㉔는 화자에게 덧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게 맞으나, 이로 하여금 화자가 인생이 덧없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봉선화가 나중에 피어올라 줄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세세(歲歲) 년년(年年) 꽃빛준 의구(依舊)하니 허물며 그뒤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라는 언급을 한다. 이는 '꽃'이 내년에도 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즉, '영구히' 상실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36~39] (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운영전』)

36. [출제의도] 작품 세부 내용 파악

'자란'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애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라는 발화를 통해 운영이 만나는 애인이 누군지 짐작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의 의미 파악

㉔에서 운영은 자란이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걱정하며 이유를 묻자, '내가 지극한 우정으로 묻는데 어찌 숨길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그동안 숨겨 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한다. 이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응답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유영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울고 있는' 인물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즉 감정을 숨기고 있어 추궁하는 게 아닌, 즐거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울고 있어서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② ㉔는 상대가 말을 꺼냈다가 중단하자, 끝까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발화이다. 또한 상대는 직접 발화에서 이름을 밝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㉔는 김 진사가 자신의 명성을 낮추며 '헛된 이름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상대의 의족을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⑤ ㉔이에서 '자신과 공유하는 경험을 상기'한 게 아니다. 자란은 해당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38. [출제의도] 서사에 삽입된 시에 관한 이해

'대군'은 '진사'에게 '가을 경치가 좋으니, (이와 관련된) 시를 지어 집으로 하여금 광채가 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시의 내용에는 '궁 안에 가을빛이 깊구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진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를 지은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대군은 김 진사의 재능을 의심하여 시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우호적으로 대우하였다. 이후 시를 보고 크게 감탄하는 절에서도 의심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③ 시는 자연 경치와 궁중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며, 여주인공이 이 시를 통해 만남의 불가능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운영의 피로움은 시 자체가 아니라 김 진사와의 만남 이후 생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④ 시를 권한 인물은 대군이며, 시를 읊은 뒤 '천하의 기제'라며 상대를 극찬하고 있으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시에는 자연물 묘사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한 서술상의 특징 파악

㉔ 직전에는 '운영'이 '지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유영'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경어체로 서술하지만, '지란'에게 말할 때는 평어체로 전달한다. 즉 여기서 경어체로 전달된 것을 통해 '운영'이 '유영'에게 말하는, 즉 서술 대상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서술자가 바뀌었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야기의 층위가 '바닷가에서 유영의 이야기'에서 '운영에게 있었던 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 서술자에서 1인칭 서술로 전환된 것이고, (중략) 이전 내용에서 운영의 '제가 이야기해볼 것이오니'라는 말을 통해 운영의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㉔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하시더라', '이러하였지.' '니고' 등 표현을 통해서 평어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듣는 이가 자란으로 교체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40~42] (현대소설)

(<출전>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소설에서 P, K, A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현실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생각은 대화를 통해 드러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인물 이해하기

K는 P에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 사업에 '헌신적으로' 일하라고 하고 있다. 이에 P가 이를 반박하니 P를 '타락된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작 취업 실패로 인해 힘겨운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P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P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③ K는 그동안 '구직권 획득 수단'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던 것이므로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④ 농촌을 위해 '함께' 봉사하자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⑤ K가 농촌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을 가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공동체 문제 파악하기

P는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이니까'라고 말하며 교육의 효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조나 교육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자식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P는 자식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효용을 부정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3~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정일근, 『어머님의 그릇』 / (나)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다)에서 화자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와 같이 동일한 종결 어미 '~주겠다'를 반복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어 비교하기

(나)에서 '할머니'는 '겨울밤 거리'에서 '글'을 놓고 '추위와 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화자는 '함박눈'을 '멈추'겠다고 말함으로써 '추위를 떠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다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함박눈'은 '할머니'에게 '추위'를 떨게 만드는, 현실의 가혹함을 형상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그릇에 담긴 물'은 '어머니'의 부재 상황을 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편안함을 되찾는 계기이다.

② '어머니의 삶'을 함축한 소재는 맞으나, 그렇다고 '나'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소재는 아니다.

④ 화자는 '나'로 하여금 '슬픔'의 '평등함'을 알려주겠다고 일방적 진술만 했을 뿐, '나'가 '함박눈'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슬픔'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함박눈'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가 현재 고단함을 느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나)에서 '함박눈'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멈춰야만 하는 대상이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고 하였으므로, 부끄러움의 대상은 '국어사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며 시를 써 온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화자가 '국어사전'을 '하찮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시에서 '하찮은 것들'은 시인이 뜨겁게 불러 주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기존 인식이 역전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